

투데이

광주 인구 지난해 1만명 늘었다

저출산·수도권 집중 불구 해마다 증가 외국인 거주자도 급증...전체 1% 육박

광주시 인구가 전국적인 저출산 및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추세에도 불구하고, 매년 1만명 안팎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 역시 해외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16일 발표한 '2011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총 147만7570명으로, 1년 전인 2010년보다 9574명(0.65%)이 증가했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 2005년 말 140만8106명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41만5953명(0.6%), 2007년 142만3460명(0.5%), 2008년 143만4625명(0.8%), 2009년 144만5828명(0.8%)으로 늘었으며 2010년엔 146만7996명(1.5%)으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처럼 인구가 증가함에 대해 국내외 기업체 유치와 광산·자동차산업의 집중 육성 등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규 택지개발에 따라 젊은 층이 대거 유입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인구 가운데 남자는 73만3094명, 여자는 74만4476명으로 남·녀 성비는 49.6 대 50.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인구가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만6411명(외국인 제외)으로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했다. 100세 이상 인구는 총 262명으로, 여자가 231명(88.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자는 31명(11.8%)에 불과했다.

자치구별 인구는 북구가 30.3%인 44만8198명으로 광주 인구의 3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산구 38만2380명(25.9%), 서구 31만9330명(21.6%), 남구 22만103명(14.9%), 동구 10만7559명(7.3%)의 순이었다.

동별로는 인구 3만명 이상인 동이 10개(서구 2, 남구 1, 북구 3, 광산 4)였으며, 인구 4000명 이하인 동이 6개(북구 2, 광산구 4)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북구 건국동으로 6만1882명,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은 광산구 동곡동으로 2334명이 거주하고 있다.

광주시 거주 외국인은 2010년 말 1만3360명에서 5.6% 증가한 1만4106명으로 전체인구의 0.95%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조선

■ 2011 광주 인구

총 147만7570명
 男 73만3094명
 女 74만4476명
 100세 이상 262명
 건국동 61,882명 최다
 동곡동 2,334명 최소
 외국인 14,106명

족 포함)이 41.2%(5817명)로 가장 많고, 베트남 15.9%(2239명), 필리핀 6.1%(85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거주지별로는 광산구가 48.7%, 북구 26.3%, 서구 9.9%, 동구 7.6%, 남구 7.5% 순이며, 하남공단이 위치한 광산구 하남동이 13.1%(1844명)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역언론사 사장 초청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언론사 사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와 기름값 폭등, 중동 투자 붐,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핵안보정상회의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사직공원, 예술공원으로 재탄생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이에 앞서 사직공원 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5개소를 작품설치 장소로 확정하고, 국내외 활동이 두드러진 조민석 씨 등 5명의 작가를 선정해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반영한 기본 설계안을 구성했다.

이전에 설치된 공공예술 작품들은 사직공원의 생태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노후화된 시설물인 파고라와 관리사무소 등에 들어서 공원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공간인 도로 절개지, 옛 수영장 스탠드 등에도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작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숙박료·체험비를 드립니다”

전남 시·군 각종 인센티브 내걸고 관광객 유치 나서

“1인당 2만원의 숙박료를 드립니다”, “숙박비에 매실 체험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전남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관광객 유치를 나섰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의 최대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17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홍보관에서 숙박업소 및 여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해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40살 이상 객실을 보유한 숙박업소 대표 30여명과 전남 관광상품을 출시한 수도권 여행사 관계자 30여명, 전남지역 13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단체 관광객 유치 상황을 비롯해 박람회 기간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숙박요금 협의, 박람회 상품 개발 등의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특히 참석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시·군별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박람회 기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다는 계획이다.

영광군은 일정 규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1인당 2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하겠다는 안을, 광양시는 내국인들에 대해서도 1인당 5000원의 숙박비를 지원하고 매실체험비(1인당 5000원)를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보성의 경우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녹차탕 입욕료 및 해수욕장 할인 등의 정책을 내놓았고 곡성군은 버스 투어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의회 또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 ‘논란’

전남도의회가 2년 만에 다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이호균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1인 1보좌관이 원칙이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2인 1보좌관 또는 상

임위벌 보좌관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급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규정이 없는 탓에 일부 자치단체는 인턴제 등을 통해 관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인천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도를 위한 명목으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인건비’ 5억4800여만원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도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만성리해수욕장 등 연안침식 복원 2조5000억 투입

여수 만성리해수욕장 등의 전국의 연안 침식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에 2019년까지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제2차 연안침식 수정 계획’(2010~2019년)에 따르면 올해 연안침식사업 예산 97억원을 새로 확보해 여수 만성리해수욕장과 전북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 울산 강동-주전지구 해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5개 주요 해수욕장에 대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 양양 남해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충남 서천 생물자원관 주변 해안, 경남 사천 선진-신촌 지역, 제주 성산오조지구 연안침식사업도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강원도 강릉 영진해수욕장 등 9개 지구 역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에 복원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 브리핑

한덕수 주미대사 사의...사표 수리될 듯

한덕수 주미대사가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대사가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임배정은 아는 바가 없으며, (사표는) 적절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수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 대사는 2009년 2월16일부터 3년간 주미대사로 재직해왔다.

광주유니버시아드 외국어스쿨 수강생 모집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외국어스쿨이 다음달 5일까지 2012년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는 영어(480명), 중국어(120명), 스페인어(20명), 불어(20명), 일어(20명) 등 5개 언어 과정을 개설했으며 상반기에는 총 660명이 14주(56시간)동안 실용회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U대 회 조직위 홈페이지(www.gwangju2015.kr)에서 받는다.

2015년 대학 졸업자 < 정년 퇴직자

청년층 일자리 개선될 듯

2015년부터는 대학 졸업자가 정년 퇴직자 수 보다 적어지면서 청년층 일자리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대학 졸업자 수는 50만2000명으로 정년 퇴직자수(57세 기준, 54만1000명)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부는 장래인구 추계 상 57세 인구수에 2010년 7월 기준 55~59세의 고용률인 67.4%를 곱해 향후 퇴직자 규모를 추정했다. 대졸자는 국가인력수급전망의 대졸 취업자 전망을 2000~2009년 대졸자 취업비율 평균으로 나눠 추정치를 구했다.

이에 따르면 대졸자수는 2014년까지 은퇴하기 도래자 보다 많다가 2015년부터 역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졸자(50만7000명)가 퇴직자(41만3000명) 대비 9만4000명, 2012년에는 3만4000명(대졸자 50만6000명, 퇴직자 47만2000명)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MBA/Law School 獎學生 募集]

碧峯(벽봉)獎學會는 家庭事情으로 인하여 進學이 어려운 學生 또는 社會人 중에서 世界에 꿈을 펼칠 人材를 設立者의 뜻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기 碧峯獎學生을 募集합니다.

◎ 碧峯(벽봉)獎學會의 設立趣旨

本人은 碧峯이란 號를 가진 大韓民國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韓國에서 生을 받아 現在는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在日僑胞입니다. 異國 땅에 살면서 恒常 생각했던 點은 祖國이 國際社會에서 尊敬받고 榮光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過去 우리 民族은 건지기 어려운 酷毒한 屈辱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祖國을 繁榮시키고 富強한 國家로 發展시켜 國際社會에서 精神性에 있어서 尊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民族의 크나 큰 希望을 確實하게 또한 빠른 時日內에 達成하려면 國際的으로 活動할 有能한 人材의 輩出이 가장 時急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 지금까지 Business 세계에 獻身하여 왔고, 이제는 國際的인 感覺을 지니고 國際社會에서 當當하게 活動할 젊은이를 育成하는 事業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나마 이 事業에 盡力하는 것이 本人이 民族을 爲해서 할 수 있는 最上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趣旨에서 碧峯獎學會를 설립, 2009년 學期부터 民族의 尊嚴을 드높이는 獎學事業을 具體的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本人의 뜻이 비록 큰 바다의 작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못할지라도 民族과 祖國의 發展에 보탬이 되면 더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碧峯獎學會의 趣旨이며 精神입니다.

- 募集人員 : 3명 (MBA 2명, Law School 1명)
 - 獎學金
 - MBA는 1년에 美貨 \$40,000 (2年間 \$80,000)
 - Law School은 1년에 미화 \$40,000 (3년간 \$120,000)
 - 應募資格
 - 美國 上位 10位圈內 大學의 MBA 또는 Law School에 合格한 者 (홈페이지 參照)
 - 大學 全學年 成績이 平均 B學點 以上인 者
- 提出書類
 - 履歷書
 - MBA 또는 Law School 合格證
 - 指導教授 또는 職場 上司의 推薦書
 - 大學 成績證明書
 - 保護者의 所得 또는 納稅 證明書
 - 自己紹介書 (進學動機 및 將來의 希望, A4用紙 3매 以內)
 - *모든 英文 書類는 韓國語로 翻譯 添附 바랍니다
 - 接受受處
 - 서울특별시 鍾路區 景雲洞 89-4 SK 허브101-713호 統一日報社 서울支社 內 碧峯(벽봉)獎學會
 - 接受期間 및 銓衡方法
 - 接受期間
 - 2012년 4월 30日 ~ 5월 4日 (登記郵便 接受受 5월 4日 도착분에 한함)
 - 제1次 전형
 - 書類審査 (1次 合格者에 限하여 2次 전형日時와 場所를 個別 通知)
 - 제2次 전형
 - 審査委員 面接 (5月 10日 實施 豫定)
- 제3次 전형
 - 審査委員會에서 最終 選定者 確定
 - 最終合格者 發表
 - 2012년 5月 13日 豫定
- 其他
 1. 獎學生 選拔은 德望있는 분들로 構成된 審査委員會에서 客觀的으로 選拔할 豫定이며, 提出된 書類는 返還하지 않습니다. 獎學生 募集과 關係한 자세한 事項은 碧峯獎學會의 홈페이지 (http://blog.daum.net/lkh3849)를 참조하시거나, 서울事務所 李光衡 事務所長 (02-725-4161, lkh3849@hanmail.net)으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2. 支給되는 獎學金은 辨濟義務가 없습니다.
 3.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留學生을 選拔함은 必須이기 때문에 家計에 餘裕가 있는 家庭의 子女분 또는 他 獎學金을 受給할 수 있는 立場에 있는 學生은 應募를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計가 어려운 學生으로서 또 強한 向學心을 갖고 使命感에 넘치는 젊은이를 當 獎學金을 應援하고자 希望하고 있습니다.

碧峯 獎 學 會

會長 金 鉉 宗 (前 通商交涉本部長 · UN大使)